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전형 모의논술**  
**출제의도 및 해설**  
**- 인문 · 사회계열 -**



**연세대학교 입학처**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전형 모의논술 문제,  
출제의도 및 해설의 저작권은 연세대학교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사용을 금합니다.

#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전형 모의논술

## 인문·사회계열 문제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아, 그래요..... 정원이 참 잘돼 있죠. 낮에 오면 더 좋아요. 저 창문으로 화단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음식들이 서빙되기 시작하자, 내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팽팽한 노력의 끈은 끊어졌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썬 목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더러 있죠. 우리나라에선 이제 좀 형성돼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 하도 육식을 공격해대니..... 오래 살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 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아홉 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오십만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요샌 사상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군데 가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제시문 <나>

Compatibilism\* emerges as a response to a problem posed by determinism. But what problem is that? Well, suppose, as the thesis of causal determinism tells us,

that everything that occurs is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laws of nature and the state of the world in the distant past. If this is the case, then everything human agents do flows from the laws of nature and the way the world was in the distant past. But if what we do is simply the consequence of the laws of nature and the state of the world in the distant past—then we cannot do anything other than what we ultimately do. Nor are we in any meaningful sense the ultimate causal source of our actions, since they have their causal origins in the laws of nature and the state of the world long ago. Determinism therefore seems to prevent human agents from having the freedom to do otherwise, and it also seems to prevent them from being the sources of their actions. If either of these is true, then it's doubtful that human agents are free or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in any meaningful sense.

However, compatibilists believe that free will is compatible with determinism. They argue that the view that free will is incompatible with determinism rests upon a confusion of *causation* with *coercion*\*\* or *control*. I am unfree, certainly, if my actions are controlled by another agent: if, for instance, my desires and beliefs are simply irrelevant to what I end up doing. If someone physically manipulates me, or holds a gun to my head, then my actions have their source in someone else, and I am not responsible for them. But the mere fact that determinism is true (if it is true) doesn't show that our actions are coerced or controlled by others. When I go get myself a cheese sandwich, I do so because I want to, and this remains true even if I am determined to want a cheese sandwich. No one forces me to get a cheese sandwich. Not even determinism forces me: to be determined to do something is nothing like being forced to do it. Once again, force is something that is applied to me in spite of what I want, by others or the external world, but determinism, if it is true, works through me and my desires. We rightly object to force, external control and coercion, but we are just confused if we identify determinism with these external powers. Even if determinism is true, rational agents are typically free: free to do what they like.

\*compatibilism, 양립론. \*\*coercion, 강요.

### 제시문 <다>

실험자는 심리학 실험실이 있는 건물 로비에서 참가자를 맞았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실험실로 올라가면서, 실험자가 참가자에게 가벼운 투로 서류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야 하니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잠시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커피를 돌려받고 참가자에게 클립보드의 서류를 건넸다. 모두 10초 안에 벌어진 상황이지만, 참가자가 커피를 들고 있던 잠깐의 시간이 우리 연구의 결정적 순간이었다.

실험실에 들어가서 참가자는 어떤 사람에 관한 소개문을 읽었다. 다른 참가자들도 동일한 소개문을 읽었다. 흥미롭게도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은 차가운 커피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보다 그 사람을 더 좋게 보았다. 물리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온도를 경험한 것이 따뜻하거나 차가운 사회적 감정을 활성화시켰고, 이것은 다시 참가자들이 타인에게 느끼는 호감에 영향을 미쳤다. 모두 무의식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실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자, 커피를 들었던 경험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못 한 것은 당연했다. 따뜻하거나 차가운 무언가를 잠깐 들고 있는 행위가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한 이후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방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하였다. 오전 9시쯤에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학회장으로 내려가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다. 과학 전문 기자에게 온 전화였다. 몇 달 전에 발표한 커피 논문에 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에 관한 기사라서 특히 나와 함께 연구에 참여한 로렌스 윌리엄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했다. 나는 열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로렌스를 칭찬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연구자인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다 잠시 숨을 고를 때 기자가 던진 한마디에 나는 무척 놀랐다. “혹시 지금 뜨거운 커피를 들고 계신가요?” 나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오른손을 보았다. 기자 말이 맞았다. 오른손에는 객실 커피머신에서 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들려 있고, 왼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맙소사, 그렇군요. 와.” 기자가 웃으며 말했다. “딱 걸리셨네요!”

#### 제시문 <라>

유아에서 성인으로, 그리고 노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30년 이상 성장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최근이나 가능해진 일이다. 이러한 전향적(prospective) 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지던 회고적(retrospective) 연구의 수많은 가설들이 폐기되었다. 회고적 연구는 성인기에 이른 개인의 모든 특성을 설명해 낼 수 있었다. 기억을 통해 개인의 삶을 되짚어보면 설명에 필요한 퍼즐 조각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단서만 있으면 충분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친척, 엄격한 부모, 교통사고, 폭력적인 이웃 등을 끌어들이 수도 있었다.

유년기가 성인기의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수행된 전향적 연구들에 따르면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훌륭하게 노년에 이른 사람과 최악의 노년에 이른 사람의 유년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둘 사이에는 주목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어린 시절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다거나, 일찍 대소변을 가렸거나, 늘 감기를 달고 살았거나, 신경이 예민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두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불행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었다. 50세쯤 되면 유아기 때의 신체건강, 형제간의 나이 터울이나 태어난 순서, 심지어 부모를 일찍 여윈 것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성인이 된 자녀가 정신 이상을 앓고 있는 경우, 모든 부모는 아이가 영유아기 시절에 겪은 문제들(공포증이나 지나친 수줍음 등)이 18세에도 계속 나타났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에도 60퍼센트 정도는 그와 똑같은 경험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고아로 자라난 사람이라 해도 80세 즈음이 되면 부모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복하고 기운이 넘칠 수 있다는 얘기다.

불행한 유년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는 가설도 널리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가설도 회고적 원인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알코올 중독자나 의사들은 회고적 견지에서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불행한 유년기를 지목한다. 그러나 전향적 연구를 근거로 보자면, 기억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놓을 뿐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지는 않았으며,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문제 1-1]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에 관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양립론자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시문 <다>와 <라>를 평가하시오. (800자 안팎, 30점)

[문제 1-2] 제시문 <가>에서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의 태도를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육식을 거부하는 화자의 아내의 태도를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분석하시오. (600자 안팎, 20점)

[문제 2-1] 제시문 <다>에 기술된 실험을 계절별로 다시 수행하였다. 여름, 겨울, 봄/가을에 참가자 100명씩을 모집하였고, 이들을 절반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차갑거나 따뜻한 음료를 들게 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인상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 각 집단의 평균 인상평가 점수는 아래와 같다. 본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온도 \ 계절	여름	겨울	봄/가을
차가운 음료	7	5	6
따뜻한 음료	6	8	6

[문제 2-2] 한 연구팀이 유년기 행복감과 성인기 행복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30년간 790명의 발달과정을 추적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한 신념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참가자들을 자유의지를 더 믿는 사람들과 결정론을 더 믿는 사람들로 구분하였다. 아래 표는 유년기 행복감 수준(행복, 불행)과 성인기 행복감 수준(행복, 불행)에 따라 각 집단의 참가자들을 분류한 결과이다.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높은 행복감을 느낄 확률을 계산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시오. (600자 이내, 25점)

가.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

나. 결정론을 믿는 사람

	성인기 행복	성인기 불행		성인기 행복	성인기 불행
유년기 행복	252	168	유년기 행복	60	40
유년기 불행	126	84	유년기 불행	24	36

#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전형 모의논술

## 인문·사회계열 출제의도 및 해설

### • 제시문 요약과 소개 •

제시문 <가>는 화자의 아내(주인공)가 육식을 거부하면서 생기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육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주인공에게 강권하는 좌중과 채식주의를 선택한 주인공의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제시문은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 개인의 식습관이 자유의지의 산물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제시문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 발췌되었다.

제시문 <나>는 자유의지에 관한 결정론과 양립론의 입장을 다룬다. 만약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할지가 자연법칙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개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립론자는 이러한 견해가 인과성을 강제와 혼동한 결과라고 본다. 이미 모든 것이 인과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개인의 선택 자체는 자유롭게 이뤄진 행위이지 통제되고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립론에 따르면, 결정론이 실재하는 힘이더라도 개인의 욕구와 의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므로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대립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핵심 지문인 두 번째 문단을 Neil Levy의 『Neuroethics』에서 수정 발췌하였고,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소개하는 지문을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에서 수정 발췌하여 첫 문단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문 <다>의 실험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가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보다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했다. 둘째, 이러한 과정을 참가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이 스스로 의도했다고 생각한 행위가 실은 환경에 의해 유도된 것일 수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점에서 제시문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John Bargh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Before you know it)』에서 제시문을 수정 발췌하였다.

제시문 <라>는 유년기 환경의 영향에 관한 회고적 연구의 결과를 반박한다. 회고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기억(회고)에 의존하여 현재의 상태(성인기 행복 또는 불행)와 일치하는 과거의 조건(유년기 환경)을 찾으려 하였다. 그에 비해, 최근에 가능해진 전향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장기간 추적함으로써 유년기 환경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상보다 작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제시문은 ‘환경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George Vaillant의 『행복의 조건(Aging well)』에서 제시문을 수정 발췌하였다.

## • 문제 해설 •

[문제 1-1]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에 관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양립론자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시문 <다>와 <라>를 평가하시오. (800자 안팎, 30점)

### <출제의도>

서로 다른 배경의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영어 제시문으로 고교 기본어휘목록에 속한 어휘와 평이한 문장들로 구성된 지문을 선정함으로써 영어 능력 자체 보다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평가 기준>

먼저, 제시문 <나>에 나타난 양립론자의 반박 대상('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결정론')과 근거('인과관계와 강요를 혼동'), 그리고 결론('결정론적 환경에서 개인은 여전히 자유롭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개인의 선택('타인에 대한 평가')이 환경('음료의 온도')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보여주는 실험을 통해 결정론적 인과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제시문 <라>는 환경('유년기 환경')이 개인의 삶('성인기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자유의지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 두 지문의 관점을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인과성과 강요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의 참가자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양립론은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견해이므로 단순히 결정론이나 자유의지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념해야 한다. 자유의지와 환경요인이 대립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해석하는 것은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모범 답안의 사례>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의 실험 결과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참가자는 비록 따뜻한 커피를 들었던 사전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강요받은 적이 없다.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뜻하게 타인을 대했으므로 자유의지를 실현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제시문 <라>에서 개인의 삶은 환경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 사실이 곧 인간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과거 사건의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열악한 유년기 환경을 극복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과정에는 인과적인 법칙이 작용할 것이다.

### <검토교사 의견>

**사회과 교사:** [문제 1-1]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한 입장 중 양립론의 주장을 바탕으로 두 가지 심리학 연구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 <나>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내용을 소개한



후, 양립론자들의 주장 논점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제시문 <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내용이고, 제시문 <라>는 결정론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제시문 <나>는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므로 <다>에 대해서는 자율적 선택 가능성을, <라>에 대해서는 행위 선택 시 작동하는 선행 행위(또는 환경)의 인과적 영향을 각 제시문에 대한 평가 논거로 삼을 수 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 함양을 교과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는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후략)”를 성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시문 안에 분석 기준과 대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시문의 요점을 잘 이해하였다면 [문제 1-1]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파악하기에 충분하다. 제시문을 잘 이해하였으며 글의 주장과 근거를 구조적으로 잘 이해한 학생은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중’ 정도이다.

**[문제 1-2] 제시문 <가>에서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의 태도를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육식을 거부하는 화자의 아내의 태도를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분석하시오. (600자 안팎, 20점)**

#### **<출제의도>**

제시문 <다>와 <라>에 소개된 연구를 이해하고, 두 연구가 각각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을 문학작품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평가 기준>**

[문제 1-1]의 제시문 <다>와 <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좌중과 아내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좌중은 다수가 따르는 육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아내에게 강권한다. 아내의 입장은 이들과는 반대로 인간의 식습관이 자유의지에 따른다고 믿으며, 결과적으로 채식으로 선택한다. 즉 인간의 식습관을 사회적인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회적 결정을 아내에게 강요하는 좌중의 태도는 제시문 <다>에 나타난 결정론적인 사고에 가깝다. 반대로 자유의지를 따라 채식으로 선택하는 아내의 입장은 인간이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는 제시문 <라>의 연구를 통해 좀 더 잘 설명된다.

#### **<모범 답안의 사례>**

제시문 <다>에 따르면 인간의 결정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식습관에도 환경요인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제시문 <가>의 좌중은 자신들의 식습관을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정당화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좌중이 채식을 본능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고 주인공에게 육식을 권하는 행위를 자유의지의 발현이 아닌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분석할 것이다.

제시문 <라>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기존 회고적 연구의 결론, 즉 인간의 삶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향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한 개인이 육식을 당연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음식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제시문 <가>에서 좌중의 권유와 설득을 거부하며, 채식을 고수하는 아내의 행위는 자유의지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검토교사 의견>

**사회과 교사:** [문제 1-2]는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과 채식을 선택한 아내의 의견 대립이 나오는 소설의 내용을 읽고, 음식에 대한 태도에 작동하고 있는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의 행위 원리를 적용·분석하라는 문제이다. 앞의 [문제 1-1]에서 파악한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의 행위 갈등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문 <가>에 대한 이해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에서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에 따른 학습 과정에서 익힌 활동이다. 좌중과 아내의 갈등에 대해서는 <화법과 작문>의 “논제의 필수 쟁점을 분석하여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한다.”를 통해 쟁점에 대한 논증화 과정을 학습해왔다. 따라서 출제의도, 채점 기준, 예시답안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다. 소설의 내용을 쟁점과 연관시켜 구조적으로 이해한 후 각 입장을 분석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제시문 독해 및 쟁점 파악에 능숙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다.

**국어과 교사:** [문제 1-2]는 제시문 <다>와 <라>의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소설에 적용하여 좌중의 태도를 설명하는 문제이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서사 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법, 즉 소설의 형상화 요소 중 하나인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나 인접 분야, 상호 텍스트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해석, 감상하는 것을 성취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또 제시문 <다>와 <라>는 제시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제시문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다>, <라>를 통해 소설을 읽는 것은 다양한 주제의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 고등학교 국어 읽기 영역이나 독서 교과 등을 통해 학습하였으므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시문 <다>는 결정론, <라>는 자유의지에 연구 초점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제시문 <가>의 좌중의 선택을 결정론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화자 아내의 선택을 자유의지로 분석한다는 점을 잘 파악했다면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는 ‘중’ 정도이다.

**영어과 교사:** [문제 1]은 제시문<나>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론자와 양립론자의 견해 차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와 <라>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고등학교에서 영어Ⅱ 과목 ‘읽기’ 영역에서 배우는 ‘글을 읽고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서 제시문<나>의 내용을 이해한 후, ‘쓰기’ 영역에서 배운 대로 비교·대조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의 '읽기' 영역에서 다루는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이해하며,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을 충분히 수행한 학생은 충분히 답안을 작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다.

[문제 2-1] 제시문 <다>에 기술된 실험을 계절별로 다시 수행하였다. 여름, 겨울, 봄/가을에 참가자 100명씩을 모집하였고, 이들을 절반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차갑거나 따뜻한 음료를 들게 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인상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 각 집단의 평균 인상평가 점수는 아래와 같다. 본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온도 \ 계절	여름	겨울	봄/가을
차가운 음료	7	5	6
따뜻한 음료	6	8	6

**<출제의도>**

실증적인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여 기존의 지식을 갱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기준>**

먼저, 실험 결과에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덥거나 추운 계절에는 음료의 온도가 인상평가에 영향을 끼쳤다. 더운 계절에는 차가운 음료가,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음료가 인상평가 점수를 향상시켰다. 차가운 음료와 따뜻한 음료의 차이의 절대값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컸다.

관찰된 결과를 근거로 제시문 <다>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실험의 결과는 제시문 <다>의 '음료 온도의 효과'에 관한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따뜻한 감각이 따뜻한 태도를, 차가운 감각이 차가운 태도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실험 결과는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가, 여름에는 차가운 음료가 타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실험은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관한 제시문 <다>의 입장을 부정하지 않는다. 제시문 <다>의 핵심 주장은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 '따뜻한 음료가 따뜻한 태도를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다. 덥거나 추운 조건이 갖춰지는 한, 음료의 온도는 여전히 인상평가에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본 실험은 전체적으로 제시문 <다>의 결정론적 입장을 지지하며, 계절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제시문 <다>의 연구를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뜻한 감각이 따뜻한 태도를, 차가운 감각이 차가운 태도를 유발한다'는 종전의 결론도 부분적으로는 유효하다. 겨울의 온도 효과(3=|8-5|)가 여름의 효과(1=|6-7|)보다 컸기 때문이다.

### <모범 답안의 사례>

무조건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는 것이 타인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겨울에는 제시문 <다>의 실험 결과가 재현되었지만, 여름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다만, 겨울에 따뜻한 음료가 미치는 영향력(8-5=3)이 여름에 차가운 음료가 미치는 영향력(7-6=1)보다는 큰 것으로 보인다. 봄과 가을에는 음료의 온도에 따라 인상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음료의 온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시문 다>에 함축된 결정론적 입장을 지지할 수 있다. 계절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의식적인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음료를 들고 있느냐가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검토교사 의견>

**사회과 교사:** [문제 2-1]은 [문제 1]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을 통해 관찰한 결과를 재해석하라는 문제이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에서 “다양한 자료(예: 통계, 지도, 신문 기사 등)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 “사회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기(원인)와 결과를 구분하고, 이를 종합하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평가한다.”라고 규정된 성취기준에 맞추어 성실하게 학습해온 학생이라면 무난히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 실험의 내용이 심리학 분야의 연구였지만 제시문 <다>와 연관된 내용일 뿐 아니라 범례도 단순하여 이해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았다. 무엇보다 실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선행지식이 전혀 필요 없고, 결과값 분석에 요구되는 사고 수준도 지극히 평이하다. 따라서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통계 수치 등을 해석하는 습관이 잘 형성된 학생은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다.

**국어과 교사:** [문제 2-1]은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서 읽은 내용을 재조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자료나 다양한 매체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식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은 고등학교 국어의 읽기 영역과 독서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에 해당하므로, 표를 통해 계절에 따라 인상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음료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표의 내용을 잘 분석한 학생은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는 ‘중하’ 정도이다.

[문제 2-2] 한 연구팀이 유년기 행복감과 성인기 행복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30년간 790명의 발달과정을 추적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한 신념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참가자들을 자유의지를 더 믿는 사람들과 결정론을 더 믿는 사람들로 구분하였다. 아래 표는 유년기 행복감 수준(행복, 불행)과 성인기 행복감 수준(행복, 불행)에 따라 각 집단의 참가자들을 분류한 결과이다.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높은 행복감을 느낄 확률을 계산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시오. (600자 이내, 25점)

가.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

	성인기 행복	성인기 불행
유년기 행복	252	168
유년기 불행	126	84

나. 결정론을 믿는 사람

	성인기 행복	성인기 불행
유년기 행복	60	40
유년기 불행	24	36

<출제 의도>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활용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제시문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평가 기준>

유년기에 불행했던 경험이 조건이므로, 아래 표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행의 조건부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

	성인기 행복	성인기 불행	합
유년기 행복	252	168	420
<b>유년기 불행</b>	<b>126</b>	<b>84</b>	<b>210</b>
합	378	252	630

나. 결정론을 믿는 사람

	성인기 행복	성인기 불행	합
유년기 행복	60	40	100
<b>유년기 불행</b>	<b>24</b>	<b>36</b>	<b>60</b>
합	84	76	160

자유의지 집단: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유년기에 불행했던 사람인 사건을  $A$ , 성인기에 행복한 사람인 사건을  $B$ 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 이다.

$$P(A) = \frac{210}{630} = \frac{1}{3}, P(A \cap B) = \frac{126}{630} = \frac{1}{5} \text{ 이므로}$$

$$P(B|A) = \frac{P(A \cap B)}{P(A)} = \frac{\frac{1}{5}}{\frac{1}{3}} = \frac{3}{5} = 0.6$$

결정론 집단: 결정론을 믿는 사람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유년기에 불행했던 사람인 사건을  $C$ , 성인기에 행복한 사람인 사건을  $D$ 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D|C)$ 이다.

$$P(C) = \frac{60}{160} = \frac{3}{8}, P(C \cap D) = \frac{24}{160} = \frac{3}{20} \text{ 이므로}$$

$$P(D|C) = \frac{P(C \cap D)}{P(C)} = \frac{\frac{3}{20}}{\frac{3}{8}} = \frac{2}{5} = 0.4$$

### <모범 답안의 사례>

자유의지를 믿는 경우에 유년기에 불행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행복할 확률은  $P(\text{성인기 행복} | \text{유년기 불행}) = 126/210 = 0.6$ 였다. 결정론을 믿는 경우에 유년기에 불행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행복할 확률은  $P(\text{성인기 행복} | \text{유년기 불행}) = 24/60 = 0.4$ 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에 비해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이 유년기 행복감 수준의 영향을 덜 받았고, 성인기에 행복할 가능성은 더 컸다.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유년기 행복감 수준이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결정론보다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 참가자들의 결과는 당연히 자유의지를 믿는 집단의 결과와 비슷할 수밖에 없다. 제시문 <라>에서 유년기의 경험이 성인기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는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보다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제시문 <라>의 주장을 보완한다. 그러나 결정론에 관한 신념이 환경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인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이 결정론을 믿게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검토교사 의견>

**수학과 교사:** [문제 2-2]는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활용하여 주어진 결과를 분석하고 제시문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고등학교에서 '확률과 통계'의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표를 분석하여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높은 행복감을 느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조건부확률을 잘 이해한 학생은 충분히 확률을 구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수학적 사고의 난이도는 '중'이다.